



##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 1

- "경남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확 줄인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북측 배후부지」준공 임박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 건립 순조롭게 진행
- 삼천포 신항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식정보 ..... 4

- 건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2~5%→3.5~8.5%) 상향조정
- 천년을 기다린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 국내 유일 신비차 (新飛車, Flying Car) 경연대회 성황리 폐막

- 김해~부산 경전철 개통식 열려
- 제7회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성황리 폐막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 궁도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신기술 정보 ..... 9

-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제628호)

### 건설기술심의 현황 ..... 10

### 계약심사 현황 ..... 11

### 기술인 나눔정보 ..... 12



## “경남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확! 줄인다”

- 지역건설산업육성과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경남도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따른 피해를 근절시켜 지역건설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30일 현판식을 했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처리센터를 설치한 것이며, 앞으로 편리한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 엄정한 조사와 사후조치 등 전문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금지규정위반, 하도급 통보의무 미이행 등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도 도시계획과 직원, 공사감독 공무원, 현장소장 등이 합동으로 직접 조사하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한 처벌은 물론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의 이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 운영은 불법하도급이 그동안 이면계약, 다단계 계약 등으로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 상당부분을 하도급 업체나 시공참여자

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는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해 엄정하고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에도 센터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055)211-431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 북측배후부지」 준공 임박

- 아파트 6,800세대 2만명 복합형 신도시 조성, 70% 분양 완료



경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 북측배후부지가 금년 12월에 준공된다.

경남도는 지난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11개 단위지구 중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가 조성됨으로써 전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신항 북측배후부지는 3,083천㎡에 5,476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현재 공정률 99%로 산업유통시설용지 100%, 상업용지 40%, 주거용지 30% 등 전체 분양면적 대비 70% 분양됐다.

특히, 산업유통시설용지에는 물류기업 BIDC

(주) 등 22개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8개 사는 공장설립 중으로 총 30개 입주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주거·상업·업무·전시·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신도시로 조성되는 신항 북측배후부지는 주변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아파트 6,800세대 2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2개교와 중·고등학교 각 1개교가 설립되며, 국제적인 전시시설 도입으로 국제물류·교류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자족형 복합도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심해양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심장인 신항만 지역은 물류·유통·국제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2015년까지 컨테이너터미널 30선석 완공시 연간 1,062만TEU 이상을 처리하게 되어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물류 허브중심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현재 총 30선석 중 18선석이 가동 중으로 고용인원은 2,755명이며, 2011년 상반기 물동량이 3,693천TEU로 부산항 물동량 7,871TEU의 47%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신항 북측배후부지의 준공을 계기로 주거·상업·전시시설·학교 등 관련시설이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5일에는 경남도와 창원시 간부공무원 20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신항 북측배후부지 등 개발현장을 방문하고, 창원시 6급 이상 중견간부 720명도 3기로 나누어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특별구역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면적 83.1km<sup>2</sup>, 계획인구 24만

명, 사업기간은 2003~2020년으로 사업비는 15조 2,314억원이다.

▶ 경제기업정책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055)211-2943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건립 순조롭게 진행 - 중앙관세분석소 등 5개 기관 하반기 착공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LH를 비롯해 11개 공공기관의 청사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자체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이고, 3개 기관은 임차청사에 입주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청사를 건립해 이전할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9월부터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이며, LH와 같이 이전지가 늦게 결정되거나 청사규모가 커서 건축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3개 기관도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는 신재생에너지기반 그린스마트시티 조성계획에 따라 모든 이전공공기관이 청사설계 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게 된다.

그 중 6개 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건립되어지고, 빗물이용시설은 모든 청사에 적용해 빗물을 화장실,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설계된다.

LH를 비롯한 5개기관은 친환경건축물 인

증을 받아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건립하게 되며, 특히 이전공공기관 청사가 경남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디자인 등 설계에 반영해 향후 이전기관청사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추진단 이전지원담당  
(055)211-2824

## 삼천포 신항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내 운영발전계획 수립 추진



“삼천포 신항”이 5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9월 6일 준공 완료했다.

이로써 삼천포 신항은 2만톤급 부두를 포함해 7개의 선석에 243천㎡의 항만부지(야적장)를 확보하게 돼 서부경남권의 해상물류 중심항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삼천포 신항의 연간 하역능력은 257만톤이나 실제 처리물동량은 180만톤 정도로 분석하고, 사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운영·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물류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항만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위그선 연구센터 및 물류기업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 삼천포 신항에 유치하기로 했던 조선기자재 제조시설은 찬반 논란 속에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

▶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055)211-2763



## 건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지난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9.26~10.17)한다고 밝혔다.

### ♣ 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가함.
- 2)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O2)2110-6207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2~5%→3.5~8.5%] 상향조정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치있

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의 개발·지정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유도와 기술력위주의 경쟁체제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사용료(2~5% → 3.5~8.5%) 상향 조정 및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하여 기술사용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청 담당자 중심 신기술교육에서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량의 신축 이음부에 볼트 풀림 방지 및 파손을 최소화하는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무게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 “패널형 경량체 유닛을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다.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O2)2110-6298

## 천년을 기다린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고려대장경 발원 천년을 기념하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지난 23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에서 성대히 개막식을 갖고 11월 6일까지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23일 오후1시20분부터 펼쳐진 개막식 사전행사는 난버벌(비언어) 공연의 선구자인 행위예술가 강만홍(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의 대장경판을 이용한 창작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타악 뮤지컬 공연, 대장경 이운행렬 재현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또한, 개막식 퍼포먼스로 천 년 전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고 미래의 지혜를 열자는 뜻을 담은 “미래 천년대장경 안착식”이 진행됐다.

이날 대장경천년축전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도지사,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등 불교계 원로스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태호·조진래·최구식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 고영진 교육감 등 도 단위 기관단체장과 각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대장경 천년 역사를 깨우는 축전개막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개막사에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종교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국제행사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면서, “대장경에 담긴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음문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린 대장경천년축전은 45일 동안 대장경 천년의 역사와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학술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행사장 내 대장경천년관에서는 대형 원통 전시공간에 3D 입체영상으로 대장경의 무한한 신비를 보여주는 대장경전시실, 장경판전 보존 과학의 원리와 고려대장경 진본 2점이 전시되는 대장경 보존과학실 등이 운영된다.



또한, 대장경천년관을 포함한 5개의 전시관에서 세계 42개국 72명 작가의 판각·판화 작품 등을 관람할 수 있고, 패엽경, 팔리어 대장경, 티벳 대장경 등 시대별 세계 대장경의 실물과 다수의 보물급 유물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대장경천년축전에서는 대장경 이운행렬 퍼포먼스, 대장경 판각·인경체험, 장경판전 모형조립 등의 체험 행사와 대장경 뮤지컬, 해외공연팀의 상설공연 등이 45일간 매일 펼쳐진다.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055)211-6263

## 국내 유일 신비차(新飛車, Flying Car) 경연대회 성황리 폐막

- 대상...충남대 CNU FDCL팀



경남도가 주최하고 (재)경남테크노파크와 경상대학교가 주관한 “제2회 경상남도지사배 신비차(新飛車, Flying Car) 경연대회”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본선 17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CNU FDCL 팀이 대상을 수상해 지난해 제1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일반 동호회팀인 Friends 팀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충남대학교 팀에게는 경남도지사상과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됐으며, 금상 Friends(일반인), 은상 Neo Flying Car(건국대), 동상 죽마고우(일반인), Team RPM(일반인), 장려상 인도네시아 반동공대, S Rover(성균관대) 팀에게도 각각 경남도지사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는 KAIST, 한양대, 성균관대 등 전국 대학(원)생, 관련 동호인, 해외팀 등 32팀이 응모해 지난 3월부터 설계제안서 심사, 기술심사 등 치열한 예선심사를 거쳐, 9월에 제3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17개팀이 본선대회에 출전했다.본선 대회에서는 실제 개인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PAV) 운행 상황을 고려해 승객 등의 적재물(Payload)을 장착하고 제한된 시간 내 일정한 공간 내에서 이륙·선회·착륙 등 정해진 항로의 비행 능력과 육상에서는 자동차 주행모드로 변환해 주행·제동·조향·주차 등 자동차와 항공기의 장점을 갖춘 비행체의 설계 및 시연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참가팀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대상을 수상한 CNU FDCL 팀은 자동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GPS 기반의 자동비행을 성공하는 등 1회 대회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

또한, 멀리 인도네시아 반동공대에서도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대회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이번 경연대회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점 등을 도출해 내년도 대회는 더욱더 내실 있는 대회로 발전시키고, 일본·인도네시아 등 외국 참가팀 참여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5기 출범이후 항공산업을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뿌리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과 함께 도내 동·서지역 산업간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인프라 구축, R&D투자비율 증대, 맞춤형 인력육성 등을 통해 항공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산업과 항공산업팀당 (055)211-2664

## 김해~부산 경전철 개통식 열려 - 16일 오전10시 사상·김해시청역사 앞 동시



드디어 김해~부산간 경전철시대가 열렸다. 김해시와 부산광역시가 지난 16일 오전10시 부산~김해 경전철 사상역사 앞에서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전철 운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두관 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김태호·장제원·허태열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은 1부 행사로서 오전 10시 사상역사 앞에서 경과보고, 개통식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 시승행사(사상역~김해시청역)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2부 행사로서 시승차량이 도착하는 오전11시47분부터 김해시청 역 주차장에서 김해시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철 개통 김해시민 축하행사가 펼쳐졌다. 김해~부산 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2년 8월 경량전철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995년 3월 재정경제부의

민간유치대상으로 지정, 2002년 12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체결 후 2006년 4월에 공사 착공해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20년간의 대역사적 사업이다.

경전철개통으로 김해시는 부산도시철도와 연계한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김해지역의 부족한 문화, 유통, 스포츠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해지역에 산재한 가야시대의 유물·유적지와 대성동 고분박물관 및 국립김해박물관 등을 부산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양 지역의 교류가 확대와 김해국제공항 이용도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전철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홈페이지([http://www.bn\\_gmetro.co.kr](http://www.bn_gmetro.co.kr)) 및 전화(055-310-9800)로 하면 된다.

▶ 교통지원과 광역교통담당(055)211-4495

## 제7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성황리 폐막

제7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21만 명의 관람객과 시민의 찬사와 환호 속에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22일 저녁에는 인기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엑스포 전야 행사가 있었으며, 23일 저녁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으로 시작되어 문화엑스포로 발돋움하는 엑스포가 되었다.

엑스포의 꽃이었던 에어쇼는 3일간 오전과 오후 매일 펼쳐졌으며, 개막식 이후 11시 30분부터 우리기술로 만든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가 올해 개량복원되어 58년만에 사천의 창공에서 KT-1 2대와의 멋진 편대비행과 함께 엑스포 국외팀인 일본 최상급 곡예파일럿 선두주자 요시히데 무로야의 곡예비행이 푸른 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23, 24일 이틀간 우리나라 공군 특수부대팀인 블랙이글스가 초음속 항공기 T-50 8기로 한 시간 동안 박진감 넘치는 곡예비행을 선보였으며, 푸른 가을 하늘을 도화지로 삼아 비행기로 하트모양에 큐피트 화살을 쏘는 장면과 태극기를 그려내는 모습에서는 관람객들의 탄성과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3일간 오후에 1시간씩 삼천포 대교위에서 펼쳐진 해양 에어쇼는 남해안의 수려한 풍경과 어우러져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관광에어택시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항공기를 직접 타고 남해안을 관광체험비행 할 수 있어 인터넷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인기를 독차지하는 체험행사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24, 25일에는 경남도가 주최하고 (재)경남테크노파크와 경상대 항공기부품 기술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경남도지사 배 신비차(PAV)경연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은 하늘을 나는 차들의 경연을 지켜보며 경남의 앞선 항공산업 발전상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항공관련 산업체 및 학교 홍보관에서는 각종 항공우주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항공과학그림그리기 대회, 항공과학글짓기 대회, 전국모형항공기 대회 등 항공 관련 행사에 만원사례를 이루는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항공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첨단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에게 첨단항공산업의 꿈과 희망을 안겨준 의미 깊은 행사가 되었다.

▶ 사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O55)831-2215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 궁도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령군은 5일 종합사회복지관 및 궁도장에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군은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총 2억 8,500만원을 투입, 종합사회복지관 300㎡에 50kw, 의령 궁도장 65㎡에 1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 모듈을 통해 태양빛을 수집한 전기에너지를 인버터(전력변환기)로 전환시켜 전기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1일 평균 3.5시간씩 210kw 연간 7만 6,650kw를 발전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구조물은 풍속 50m/s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 됐으며 모듈을 곡선으로 유지시켜 청사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에너지 사용과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령군 경제과(O55)570-2821

## 패널형 경량체 유닛을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티브이에스포럼 (대표자 김태완, 김상모)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1-12		
전 화	070-7842-4710	팩스	02-583-6089

법 인 명	에스에이치공사(대표자 유민근)		
법인번호	11117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전 화	02-3410-7156	팩스	02-3410-7841

법 인 명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자 전형철, 유근하)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8		
전 화	02-3496-8170	팩스	02-545-3461

법 인 명	롯데건설(주)(대표자 박창규)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		
전 화	02-3483-7885	팩스	02-3483-7899

법 인 명	(주)포스코건설(대표자 정동화)		
법인번호	174611-*****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전 화	032-200-2225	팩스	032-200-2254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628호
- 기술분야 : 건축구조
- 내용요약

본 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 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중공슬래브 유닛을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 사이에 유닛을 설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닛을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 요 청 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 심의방법 : 소집심의
- 심의위원 : 14명(도로분야 외 5개분야)
- 심의일자 : 2011. 9. 30(금)
- 심의결과

공사명	공 사 개 요	심의안건	심의결과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	<선진리 지구> - 수변공원 조성 : 21,016㎡ - 풍물거리 조성 : 461m - 선진항 물양장 설치 : 65m <신촌리 지구> - 해안도로 : 2,000m - 해양생태 관찰데크 : 4,697㎡ · 공사비:264억원 · 기 간:2010~2014	실시설계 적 정 성	조건부채택

### 제8회 지방건설기술심의(설계평가) 계획

- 일 시 : 2011. 10. 18(화)
- 장 소 : 도정회의실(별관 3층)
- 참석대상 : 45명 정도(소위원, 발주청 및 입찰참여업체, 심의부서 등)
- 심의안건 : 북면감계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공사
- 참여업체 : 태영건설컨소시엄, STX건설(주)컨소시엄

의 안 번호	요 청 사 항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요청자
2011- 8-1	기본설계 적격	북면감계시영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도시 개발지구내	- 세 대 수 : 560세대 - 연 면 적 : 43,700㎡, - 부지면적 : 22,630㎡ - 층 수 : 15층(지하 1, 지상 14) - 공 사 비 : 406억원 - 낙찰자 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개월간(870일)	창원시장 (주택 정책과)

▶계약기술심사관 (O55)211-3542

##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1.9	계	55건	125,800	120,106	
	토목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외 11건	30,623	28,425	
	건축	의령군 농경문화홍보관 건립공사외 6건	18,415	17,616	
	기계	양산문화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외 외 2건	9,935	9,659	
	학술	합천 무학대사 휴허지 정밀 발굴조사외 2건	872	782	
	기술	부북천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외 9건	4,716	4,578	
	전기	거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설치전기공사 외 6건	5,958	5,776	
	조경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외 7건	54,070	52,132	
	일반	전국장애인체전이동식 간이화장실 임대용역외 2건	615	558	
	통신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통신 공사외 1건	596	580	

▶계약기술심사관 (055)211-3511



### 제95회 기술사 면접시험 접수안내

구 분	일 자	비 고
필기시험 원서접수	7.15 ~ 7.21	
필기시험일	8.7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예정)자 발표	9.30	첫날
응시자격서류 (학력)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10.4~10.13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면접시험 원서접수	10.4~10.7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
면접시험	11.10	
합격자 발표	11.18	

### 제4회 기사·산업기사 합격자 발표 안내

구 분	일 자	비 고
필기시험 원서접수	9.2 ~ 9.8	
필기시험일	10.2	원서접수 (인터넷)
합격(예정)자 발표	10.14	첫날
응시자격서류 (학력)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10.17~10.26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면접시험 원서접수	9.5~9.8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
실기시험	11.12~11.25	
합격자 발표	12.23	

### “해양에너지 개발과 토목기술인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 목 적 : 최근 토목건설 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종합해 보면 전통적인 토목분야의 정체 내지 축소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타 건설부분으로의 확대와 접목을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토목건설 시장의 외연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정부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로 인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새로운 시장확대와 창출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에너지개발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동 산업에서 토목기술자의 역할이나 기회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함.

- 일 시 : 2011. 10. 25(화) 14:00~
- 장 소 : 건설회관 대회의실(3층)
- 주 관 : 대한토목학회

※ 자세한 사항은 대한토목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e.or.kr/ko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계속기술심사과)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d.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42~6

FAX : (055)211-35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